東洋學 第47輯(2010年 2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金俊根筆『텬로력뎡』 삽화 연구*

신 선 영**

| 국문초록 |

『텬로력뎡』은 영국인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의 *The Pilgrim's Progress* (1678년 초판 발행)를 원작으로 1895년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문학 번역서이자 기독교문학 번역서이다. 이 『텬로력뎡』을 기획하고 번역한 사람은 해리엣(Harriet Elizabeth Gibson, 1860~1908)과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이었다. 그리고 『텬로력뎡』에서 번역자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은 삽화가 김준근이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텬로력뎡』 삽화와 유사한 영문본인 맥과이어 주석본 *The Pilgrim's Progress* 삽화(1863~65년 초판발간)와 漢譯本 『天路歷程土話』 삽화(1870~71년발간)가 발굴되어 김준근 삽화의 연원 및 영향관계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양식 분석결과 『텬로력뎡』의 내용과 구성에서 한역본 『天路歷程土話』 보다 영문본인 맥과이어 주석본 *The Pilgrim's Progress*의 셀루스와 프리올로 삽화의 영향이 뚜렷했다. 이는 기존에 서양 미술이나 기법이 중국을 통해 수용되었던 것이 개항이후 비록 인쇄물이긴 하지만 서양 미술과 직접 접촉하고 그림에 반영된 최초의 예로서 의의가 있다. 김준근은 삽화 제작이전에 서양화법인 선원근법과 명암법을 초보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지만 서양화법의 전형을 보여주는 맥과이어 주석본의 셀루스와 프리올로 삽화를 바탕으로 『텬로력뎡』 삽화를 제작하면서 삽화와 풍속화에 서양화법을 더욱 발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회화 양식을 확립시켰다.

김준근 『텬로력뎡』 삽화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삽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서양인 대신 조선인으로 변용되어 그려졌다는 것이다. 조선인으로의 번안 배경은 기독교 선교정책의 영향이 컸다. 즉 토착민들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전파시키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삽화에서 시각적 이미지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화기의 기독교 정책이 반영된 김준근의 삽화는 讀者들에게 소설의 내용이 쉽게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효과를 가졌음에 틀림없다.

『텬로력뎡』은 보급기간, 보급층의 범위 등이 훨씬 넓고 다양해졌는데, 이는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서양 산업혁명의 利器인 근대적 인쇄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대량 복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준근은 삽화라는 미술 언어로 대중화된 서적물을 대량으로 출판, 보급함으로써 지적 교양의 일반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김준근, 천로역정, 텬로력뎡, 천로역정토화, 맥과이어, 셀루스, 프리올로, 풍속화, 서양화법, 네비우스, 삽화

* 본 논문은 「배재학당역사박물관소장 유물 특별전 텬로력뎡」에서 강연한 내용(2009. 8. 17)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강사 / ashan@hanmail.net

목 차

Ⅰ. 서 론
Ⅱ. 金俊根筆『텬로력뎡』삽화의 도상적 연원
Ⅲ. 金俊根筆『텬로력뎡』삽화와 풍속화 양식의 영향관계
Ⅳ. 결론 : 金俊根筆『텬로력뎡』삽화의 의의

Ⅰ. 서 론

『텬로력뎡』은 1895년에 간행된 우리나라 초창기 서양문학 번역서이자 기독교문학 번역서이다.[1] 원작은 영국인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의 *The Pilgrim's Progress*로서, 1678년에 간행된 이후 지금까지 120여 개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널리 애독된 작품이다. 그 중 하나인 최초의 한국어판 번역서『텬로력뎡』을 기획하고 번역한 사람은 해리엣(Harriet Elizabeth Gibson, 1860~1908)과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이었다. 그리고 이『텬로력뎡』에서 두 번역자만큼이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이들은 金俊根과 李昌稙(1866~1936)이었다. 김준근은 19세기말 개항장에서 활동했던 풍속화가로서『텬로력뎡』의 삽화를 담당하였다. 이 삽화는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로 언급되고 있으며 서양화법 적용의 예로 주목되어 왔다.[2] 게일의 한국어 선생이기도 했던 이창직은『텬로력뎡』의 교열자로 참여했다. 그런데 국어학자 김동언은 이창직이 교정뿐만 아니라 번역에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텬로력뎡』번역에 있어서 게일이 참고한 영문본 뿐만 아니라 이창직이 참고했을 중국 漢譯本 두 본을 기초로 번역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글 표기 체계의 분석을 통해 영문본과 漢譯本을 번역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냄으로써 이를 입증하였다.[3]

이처럼 게일부부와 이창직이『텬로력뎡』을 번역할 때 영문본과 漢譯本을 참고하였다면 삽화 역시 김준근이 새롭게 창작했을 가능성보다는 이와 똑같은 본이나 이외의 여러 가지 저본들을 참조하여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텬로력뎡』제작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고 김준근이 삽화를 제작할 때 참고했을 영문본과 중국어 역본[漢譯本]을 발굴, 분석함으로써 김준근 삽화가

1) 서양문학 번역서의 효시로서『텬로력뎡』(1895)과 함께 아라비안 나이트를 번역한『유옥역젼』(1895)이 언급되고 있다. 金秉喆,『韓國近代飜譯文學史硏究』, 乙酉文化社, 1975, pp.152~154; 김동언,『텬로력뎡과 개화기 국어』, 한국문화사, 1998, p.11; 오순방은 중국 선교사였던 그리휘트 존(Griffith John, 1831~1912) 목사가 지은 回章小說『引家當道』의 한글번역본『인가귀도』(1894)를 최초의 기독교 문학 번역서로 보았다. 오순방,「韓國基督敎博物館 所藏 韓國 최초의 기독교 번역소설『인가귀도』연구」,『한국의 초기 기독교 문학』,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6, pp.9~40.

2)『텬로력뎡』삽화와 관련하여 개신교 미술의 효시와 서양화법의 적용에 대한 언급은 金珠英,「그리스도교 전래에 따르는 西洋畫流入의 軌跡」,『弘益美術』 1, 1972, p.104; 이성미,『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 대원사, 2000, pp.122~123; 정병모,『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pp.418~426; ____,「箕山 金俊根 風俗畫의 國際性과 傳統性」,『강좌미술사』 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979.

3) 김동언, *ibid*, pp.16~27.『텬로력뎡』에서 이창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Richard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1972, p.27.

어느 본에 근거를 두고 제작된 것인지 그 도상의 연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근대적 機制 속에서 탄생한 『텬로력뎡』 출판이 회화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드러날 것이다.

한편 金俊根의 『텬로력뎡』 삽화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서양 소설이 원작임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들이 서양인이 아닌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쪽진 머리를 한 조선인으로 그려졌다는 점, 그러나 畫法에 있어서는 서양화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서양문학서의 등장인물들이 조선인으로 변용된 원인을 당시 기독교 정책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내에서의 기독교 전파 상황은 중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 漢譯本 삽화의 土俗化 경향도 아울러 참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김준근의 『텬로력뎡』 삽화 일부에 표현된 서양화법은 자신의 풍속화 양식을 차용했지만 『텬로력뎡』 삽화의 저본으로 삼았던 영문본 삽화의 영향으로 삽화 제작 이후 김준근 풍속화에서는 서양화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김준근 『텬로력뎡』 삽화와 영문본 삽화, 김준근 풍속화 양식의 비교 고찰은 『텬로력뎡』 삽화가 갖는 의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金俊根筆『텬로력뎡』삽화의 도상적 연원

1. 『텬로력뎡』의 제작 배경

원작인 *The Pilgrim's Progress*(한국 · 중국 · 일본에서는 '天路歷程'으로 번역)는 전체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678년에 출판된 제1부의 내용은 話者가 광야를 지나다 동굴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크리스챤(『텬로력뎡』에서는 '긔독도'로 번역)이 여러 역경을 헤치고 천국에 당도하기까지 순례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제2부는 1684년에 간행되었으며 크리스챤의 아내 크리스티나와 네 자녀가 크리스챤을 찾아 떠난 순례길에 겪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4]

『텬로력뎡』 초판본은 제1부만을 번역한 것으로 2책으로 분장되어 있다.[5] 내지 첫 페이지에 게일 부부가 번역하고 三文出版社(Trilingual Press)에서 1895년에 인쇄되었음이 영문으로 명시되어 있다.[6] 그리고 그 뒷면에 역시 영문으로 '존 번연의 사후 20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과 미국의 기독교도들이 우애로 결속되기를 기원하기 위해 출간한다'고 쓰여 있어 표면적인 간행목적이 적혀 있다. 이어서

4) J.번연, 朱耀燮 譯, 『天路歷程』 上 · 下, 乙酉文化社, 1975; 김홍만, 『천로역정』, 생명의말씀사, 2005.

5) 『텬로력뎡』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판본, 표지 28.7×20㎝, 삽도 22.3×17.3㎝, 四柱雙邊, 半葉匡廓 11행 20자, 삽도42면, 上下內向花紋魚尾, 四針眼訂, 삼문출판사(Triligual Press), 1895.

6) 『텬로력뎡』(三文出版社, 1895)에 'Translated by Mr. and Mrs. Jas. S. Gale'로 인쇄되어 있다. Richard Rutt, *ibid*, pp.26~27.

서문에 '천로역정이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나는 길'이라 하여 제목의 의미를 밝히면서 시작되어 마지막에 '본문대로 번역한 것'임을 언급하고 '미진한 것이 있을지라도 대강 중요한 뜻을 밝히는 것이니 믿는 이들은 이 책을 읽어보라'는 말로 문장을 마치고 있다. 이 문장을 통해 『텬로력뎡』의 번역 대상본이 있었음과 기독교도들의 신앙심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번역된 문학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문 끝에 '구세쥬강ᄉᆞᆼ일쳔팔ᄇᆞᆨ ᄀᆞ구십ᄉᆞ년원산셩회긔일셔'라 표기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번역자와 번역 연도를 밝히고 있다. 이는 게일이 1892년 6월 부산에서 원산으로 본거지를 옮겨 교회를 세우고 난 후인 1894년에 번역이 완성되었음을 알려준다.[7]

서지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텬로력뎡』은 선교사였던 게일과 해리엣이 번역하였다. 해리엣은 선교사였던 남편 헤론(J.W. Heron, 1856~1890)을 따라 1886년 조선에 왔고 헤론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891년부터 『텬로력뎡』의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해리엣이 1892년 4월 영국계 캐나다 출신 선교사 게일과 재혼을 한 이후 『텬로력뎡』의 번역은 게일이 주도하였던 것 같다.[8] 게일은 1888년 선교사로 조선에 부임한 이후 1927년 퇴임할 때까지 문서선교를 주도하며 성경 · 소설 · 교리서 등을 집필 · 번역하였고 *Korean Repository, Korean Review* 등의 잡지에 글을 기고함으로써 조선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9] 특히 『텬로력뎡』은 그가 남긴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텬로력뎡』은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85~1902)가 건립한 근대적 교육기관이었던 배재학당 內에 설치된 삼문출판사(The Trilingual Press)에서 1895년에 인쇄되었다. 아펜젤러는 아직 선교사업의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던 1880년대에 문서선교의 경험이 많았던 올링거 목사(Franklin Ohlinger, 중국명 武林吉, 1845~1919)를 중국에서 초빙하여 한국 선교의 기초를 닦고자 하였다. 올링거 목사는 1887년에 내한하자마자 배재학당 안에 인쇄시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889년 1월에 중국 상해에서 32면을 찍을 수 있는 인쇄기를 구입하고 일본에서 한글과 영문 활자 주조기를 도입하여 마침내 영어 · 한자 · 한글을 인쇄할 수 있는 '三文出版社(Trilingual Press)'를 설립하였다.[10] 감리교에서 운영했던 삼문출판사는 교파를 초월하여 여러 기독교 관련 서적들을 출판함으로써 문서선교의 기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닙신문』을 발행하는 등 근대적 출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언론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근대적 인쇄시설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출판환경은 『텬로력뎡』과 같은 선교사들의 저술과 번역 작업의 성과로 이어졌다. 초기 기독교서들은 대체로 서양서의 중국어 역본들을 한글로 重譯한 것이

---

7) 게일의 원산 파견은 Richard Rutt, *ibid*, p.22; 趙庭京, 「J.S. Gale의 韓國認識과 在韓活動에 關한 一硏究」, 『한성사학』 3, 한성사학회, 1985, pp.87~88.

8) Richard Rutt, *ibid*, p.27.

9) 趙庭京, *ibid*, pp.104~109; 金鳳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의 韓國學 著述活動에 관한 硏究」, 『서지학연구』 3, 서지학회, 1988, pp.142~162.

10) N.D. Chew, "Printing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906 Jan. pp.47~49; 본고에서는 안종묵, 「한국 근대신문 · 잡지의 발달 시기에 선교사들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 한국언론학회, 2004, p.6에서 재인용. 윤춘병은 1889년 배재학당에 인쇄소(삼문출판사)를 설치한 후 학생들에게 식자, 조판, 인쇄, 제본까지 맡게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尹春炳, 『韓國基督敎新聞 · 雜誌百年史 1885~1945』,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pp.33~34.

었다.[11] 선교사들이 기독교서를 한글로 번역할 경우 게일이 이창직의 도움을 받았듯이 한국어에 서툰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한국인 조력자들은 영어보다는 한문에 능했기 때문에 중국어 역본을 참고하여 선교사들의 번역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삼문출판사를 설립했던 올링거 역시 조선에 있는 7년 동안 한국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많은 저서와 역서들을 집필하였다. 그의 대표적 작품인 『의경문답』(1893)·『진도입문문답』(1893)·『삼자경』(1893)·『인가귀도』(1894) 등도 중국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특히 『인가귀도』는 중국의 선교사 그리휘트 존(Griffith John, 중국명 楊格非, 1831~1912) 목사가 지은 回章小說 『引家當道』의 官話本 『引家歸道官話』를 번역한 것으로, 『텬로력뎡』보다 앞서 간행된 기독교 소설로 언급되기도 한다.[12] 이 소설은 중국인 李先生의 기독교 입문과정을 담은 것으로, 『텬로력뎡』에서 '긔독도'가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전개 방식과 유사하다. 이와 아울러 한글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漢譯本 『喩道要旨』도 조선에 들어와 있었다. 이 책은 독일인 크루마쳐(Frederic Adolphus Krummacher, 1767~1845)가 지은 *Parables*의 英譯本을 저본으로 선교사 티모티 리차드(Timothy Richard, 1845~1907)가 1894년 중국어로 번역하여 上海의 美華書館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에는 중국인으로 변용된 인물 삽화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13] 이렇게 중국을 통해 들어온 기독교 관련 소설의 유입과 삽화의 경향은 게일이 『텬로력뎡』을 번역, 출판하는데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며 김준근의 삽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맥과이어 주석본 및 『天路歷程土話』와의 비교

문제는 김준근이 『텬로력뎡』 삽화를 제작할 때 어떤 저본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저본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참고했는가이다. 연구자들은 『텬로력뎡』 삽화의 저본이 있었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14] 그러나 어떤 원본을 보았는지 구체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아 김준근의 창작 정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였다. 그러나 최근 김준근 삽화와 유사한 영국의 맥과이어(Robert Maguire, 1826~1890) 목사가 주석을 곁들어 펴낸 영문본 *The Pilgrim's Progress*(이하 맥과이어 주석본)와 중국 廣州 惠師禮堂에서 출판한 『天路歷程土話』가 확인되어 『텬로력뎡』의 삽화가 영문본과 한역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5]

---

11) 기독교서의 한역본 重譯에 대해서는 김봉희,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1882~194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pp.28~29; 오순방, *ibid.*

12) 오순방, *ibid*, pp.9~15.

13) 오순방, *ibid*, pp.3~8.

14)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p.418; ____, 「箕山 金俊根 風俗畫의 國際性과 傳統性」, 『강좌미술사』 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p.974~985; 신선영, 「箕山 金俊根 風俗畫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 20,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6, pp.111~112.

15) 『텬로력뎡』 삽화와 영문본인 맥과이어 주석본과의 관련성은 신선영이 「19세기말 시대의 반영, 箕山 金俊根의 風俗畫」(『기산풍속도 - 그림으로 남은 100년 전의 기억』, 청계천문화관, 2008, pp.148~152.)에서 처음 소개하였다.

(1) 맥과이어 주석본과 『天路歷程土話』의 서지사항

맥과이어 주석본 *The Pilgrim's Progress*는 1 · 2부의 내용이 합본되어 제1부는 19장, 제2부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주석본은 1863~65년쯤에 런던 Cassell, Petter & Galpin에서 간행되기 시작하여 1883년 출판사가 Cassell & Company로 바뀐 이후 1900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재발행되었다.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 프랑스 · 캐나다 · 네덜란드 등 歐美유럽에서 동시 출판되었다.[16] 이 책의 서문은 없고 각 장 첫머리에 해설이 있으며 이야기 중간 중간에 주석과 삽화들을 삽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맥과이어 주석본이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발행되면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텬로력명』과 마찬가지로 목판으로 제작된 아름다운 삽화들이 소설의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맥과이어 주석본의 삽화를 그린 이는 셀루스(Henry Courtney Selous, 1803~1890)와 프리올로(M. Paolo Priolo, 1818~1892)이다. 프리올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셀루스는 런던 출신의 유명한 삽화가이자 초상화 · 산수화 · 풍속화 · 역사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작했던 화가였다. 셀루스는 14세에 로얄 아카데미(Royal Academy)에 들어가 그리스 조각의 데생 등 엄격한 고전미술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삽화 제작에 커다란 자양분이 되었다. 즉 거대한 작품에 데생력이 엿보이는 역동적 인물묘사와 복잡한 구도는 삽화에서도 흑백으로 조형화되어 나타났다.[17] 〈이케니 군중에게 연설하는 보디카(*Boudicca Haranguing the Iceni*)〉(1843)는 셀루스의 대표적 역사화로 1세기경 로마군이 영국 남부의 이케니족을 공격하자 왕비였던 보디카가 이케니족을 이끌고 저항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도 1]). 역동적으로 표현된 주인공 보디카와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은 1844년 런던 할러웨이(Holloway)에서 간행된 셀루스의 삽화책 *Illustrations of The Pilgrim's Porgress* 중 하나인 〈허영의 시장 군중들에게 조롱당하는 크리스챤과 페이스풀(*Christian and Faithful Mocked by the Scorners of Vanity Fair*)〉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도 1]).[18] 셀루스와 *The Pilgrim's Progress* 삽화와의 인연은 이 삽화책에 21개 삽화를 그리면서 시작되었던 것 같다. 이 책에는 모시스(Henry Moses, 1782~1870)라는 판각자까지 밝히고 있어 본격적인 기획을 통하여 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19] 이를 바탕으로 1863~65년경 간행된 맥과이어 주석본에서 셀루스는 프리올로와 함께 제1부 56점, 제2부 46점으로 무려 102점의 삽화를 제작하였던 것이다. 셀루스가 1844년에 이미 천로역정 삽화를 그렸던 것으로 보아 맥과이어 주석본의 삽화 작업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

16) 영국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소장 맥과이어 주석본 *The Pilgrim's Progress* 들의 서지사항을 보면 1863~65년부터 시작하여 19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참고한 맥과이어 주석본은 출판연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영국국립도서관 서지사항에 따르면 출판연대가 기재되지 않은 출판본은 대체적으로 Cassell & Company에서 1880~90년대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7) Simon Cooke, "A 'Considerable Power': the Illustrations of Henry Courtney Selous". *The Private Library* 6th Series, 1:3, Autumn, 2008, pp.97~105.

18) 셀루스는 천로역정의 내용을 삽화뿐만 아니라 거대한 스케일의 파노라마 그림으로도 제작하였다. 대표적 작품으로 *They Behold the Fate of the Apostate*, 1850~1851, 243.8×274.3㎝, Collection of the Saco Museum.

19) Simon Cooke, *ibid*, p.142.

[도 1] 좌) H.C. Selous, *Boudicca Haranguing the Iceni*, 1843년, 304.8×426.7㎝, 소장처 미상.
우) H.C. Selous, *Christian and Faithful Mocked by the Scorners of Vanity Fair* from *Illustrations of The Pilgrim's Progress*, 1844년, 석판화, 20.3×30.5㎝, Lodon: Holloway.

한편 『텬로력뎡』 삽화와 유사한 중국 漢譯本도 있어 흥미로운데, 『天路歷程土話』의 삽화가 그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天路歷程土話』는 제1부만을 번역한 것으로 5卷으로 나뉘어 합본되어 있다.[20] 삽화 30개는 앞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어서 얇은 분홍색 속지에 '天路歷程土話'라는 제목과 '同治十年'과 '洋城惠師禮堂鐫'라는 간행연도와 간행처를 알 수 있는 표제가 있다. 즉 洋城은 중국 廣州의 별칭으로, 廣州의 惠師禮堂이라는 출판사에서 1871년에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21] 그러나 '同治九年'(1870)에 간행된 『天路歷程土話』와 삽화 28개가 포함된 제2부 『續天路歷程土話』도 있어 『天路歷程土話』시리즈는 1870년 처음 인쇄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天路歷程土話』 서문은 原序과 土話序로 이루어져 있다. '天路歷程原序'라는 제목으로 보아 중국 『天路歷程』의 文言本이나 官話本의 서문을 옮긴 것 같다. 이 판본에서 중요한 것은 '天路歷程土話序'인데, 첫머리에 咸豊3년(1853)에 선교사가 『天路歷程』을 처음 중국어로 번역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영국 선교사 번스(W.C. Burns, 1815~1868)가 번역한 중국 최초의 漢譯本 『天路歷程』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天路歷程』은 文言本이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번스는 다시 1865년에 구어체 북경어로 官話本을 간행하였다.[22] 그런데 土話序文에 이르기를 『天路歷程』의 내용이 비유가 많고 官話本, 즉 북경어본은 광동 지역 사람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석을 달고 廣東土話, 즉 광동 방언으로 새로이 번역 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20) 『天路歷程土話』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목판본, 청색 양장 표지 25.0×14.1㎝, 四柱雙邊, 半葉匡廓 10행 24자, 삽도 30면, 上魚尾. 廣州: 惠師禮堂, 1871년. 영국 런던대학교 SOAS Library에 소장된 이 서책의 열람을 위해 애써 주신 Charlotte Horlyck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21) 표제 뒷면에는 영문으로 "PILGRIM'S PROGRESS, PT I CHRISTIAN, CANTON, VERNACULAR, 1871"이라고 인쇄되어 출판 지역과 연도를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있다.

22) 김동언, 『텬로력뎡과 개화기 국어』, 한국문화사, 1998, pp.24~25; 呂丞九, 「천로역정 · 天路歷程 · The Pilgrim's Progress-John Bunyan과 J.S. Gale」, 『책 · 冊과 歷史』, 한국출판무역주식회사, 2003, p.181; 吳文南, 「從歸化到異化」, 『甘肅聯合大學學報』 第22卷 第5期, 2006, p.70.

다. 중국은 면적이 넓고 민족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독특한 방언들을 가지고 있는데, 표준말인 북경 구어체로 번역한 官話本조차도 광동지역의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이 광동어로 출판하였던 것이다. 아쉽게도 누가 번역하고 삽화를 그렸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2) 『텬로력뎡』과 두 판본의 비교

『텬로력뎡』과 이 두 판본의 간행연도와 삽화 개수를 비교해보면, 우선 간행연도는 맥과이어 주석본 1863~65년경, 『天路歷程土話』 1870~71년, 『텬로력뎡』 1895년이며 삽화 수는 비교 대상인 1부만 헤아리면 맥과이어 주석본 56점, 『텬로력뎡』 삽화 42점, 『天路歷程土話』 30점이다.[23] 피상적으로 볼 때 간행연도에 있어서는 김준근의 『텬로력뎡』보다 맥과이어 주석본과 『天路歷程土話』 모두 올라가므로 두 판본 모두 『텬로력뎡』 삽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수에 있어서는 김준근의 『텬로력뎡』 삽화가 『天路歷程土話』보다 맥과이어 주석본 삽화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텬로력뎡』 삽화 42점의 구성은 맥과이어 주석본과 거의 흡사하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장면인 기독도가 전도사의 지시를 받는 〈긔독도가텬도의게도를밧다〉와 *Evangelist directs Christian to the Wicket Gate*에서 죄의 짐을 메고 성경책을 들고 있는 주인공 '긔독도', 멀리 빛을 발산하고 있는 광명의 문, 그리고 그 광명을 가리키는 듯한 전도사의 손짓은 각각의 인물이 조선인과 서양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도 2]). 그리고 『텬로력뎡』 삽화 제목은 맥과이어 주석본 삽화 제목의 의역이긴 하지만 장면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같다.

[도 2] 좌) 김준근, 〈긔독도가텬도의게도를밧다〉, 『텬로력뎡』, 1895년, 목판본, 22.3×17.3㎝ , 三文出版社(배재학당본), 화봉책박물관 중) H.C. Selous & M. Paolo Priolo, *Evangelist directs Christian to the Wicket Gate*, *The Pilgrim's Progress*, 약 1880~90년, 목판본, New York, London, Paris, Melbourne: Casell&Company, Limited 우) 작자미상, 〈指示窄門〉, 『天路歷程土話』, 1871년, 목판본, 洋城: 惠師禮堂.

23) 본고에서는 맥과이어 주석본은 1880~90년본을, 『天路歷程土話』는 1871년본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天路歷程土話』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장면의 구성과 중국 고유의 사자성어식의 제목이긴 하지만 삽화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장치해 놓은 점이 『텬로력뎡』 및 맥과이어 주석본과 유사하다([도 2]). 그러나 30점의 『天路歷程土話』 삽화 중 맥과이어의 주석본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는 것은 23점뿐이다. 나머지 2점은 맥과이어 주석본의 삽화 2점씩을 혼합해서 그린 것이며 그 밖의 장면은 독창적으로 각색하였다. 특이하게도 『天路歷程土話』의 〈戰勝魔王〉은 셀루스의 1844년 *Illustrations of The Pilgrim's Progress* 의 삽화와 더 유사하여 『天路歷程土話』가 셀루스의 1844년 삽화책을 참고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도 3]).[24]

[도 3] 좌) H.C. Selous, *Christian's Combat with Apollyon* from Illustrations of The Pilgrim's Progress, 1844년, 석판화, 20.3×30.5㎝, Lodon: Holloway 중) 작자미상, 〈戰勝魔王〉, 『天路歷程土話』, 1871년, 목판본, 洋城: 惠師禮堂. 우) H.C. Selous & M. Paolo Priolo, *Christian's Co*mbat with Apollyon, 약 1880~90년, 목판본, New York, London, Paris, Melbourne: Casell & Company, Limited

『텬로력뎡』과 두 판본의 삽화를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이 세 판본이 모두 일치하는 삽화 개수는 총 21점이다. 이 21점의 삽화는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세 판본의 장면 구성이 유사한 경우로 〈긔독도가텬도의게도ᄅᆞᆯ밧다〉를 포함해 10점이 이에 해당한다(〈표 1〉). 예를 들어 〈긔독도가우울니에ᄲᅡ ᄌᆞ졋ᄂᆞᆫᄃᆞ ㅣ은조가구원ᄒᆞ다〉는 기독도가 구렁에 빠져 있을 때 은조(help)가 두 손을 뻗어 기독도를 구렁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다([도 4]). 맥과이어 주석본의 경우 깊은 구렁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한 데 비해 김준근의 삽화는 구렁이 아니라 얕은 시냇물에서 빠져 나오는 것처럼 가볍게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天路歷程土話』의 삽화는 극적 긴장감에 있어서 맥과이어 주석본에 가까우나 인물에 있어서는 역동적이고 양감있는 인물을 묘사한 맥과이어 주석본보다는 선묘만으로 인물을 표현한 『텬로력뎡』에 가깝다. 이러한 동서양의 묘법 차이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제외하곤 세 판본의 내용과 구성이 유사하다.

24) 필자는 1844년에 간행된 셀루스의 삽화책과 1863~65년에 간행된 맥과이어 주석본의 삽화는 일부만 확인하였다. 셀루스의 이 삽화책 삽화들과 『天路歷程土話』와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도 4] 좌) 김준근, 〈긔독도가텬도의게도롤밧다〉, 『텬로력뎡』, 1895년, 목판본, 22.3×17.3㎝ , 三文出版社(배재학당본), 화봉책박물관 중) H.C. Selous & M. Paolo Priolo, *Evangelist directs Christian to the Wicket Gate*, *The Pilgrim's Progress*, 약 1880~90년, 목판본 우) 작자미상, 〈指示窄門〉, 『天路歷程土話』, 1871년, 목판본, 洋城: 惠師禮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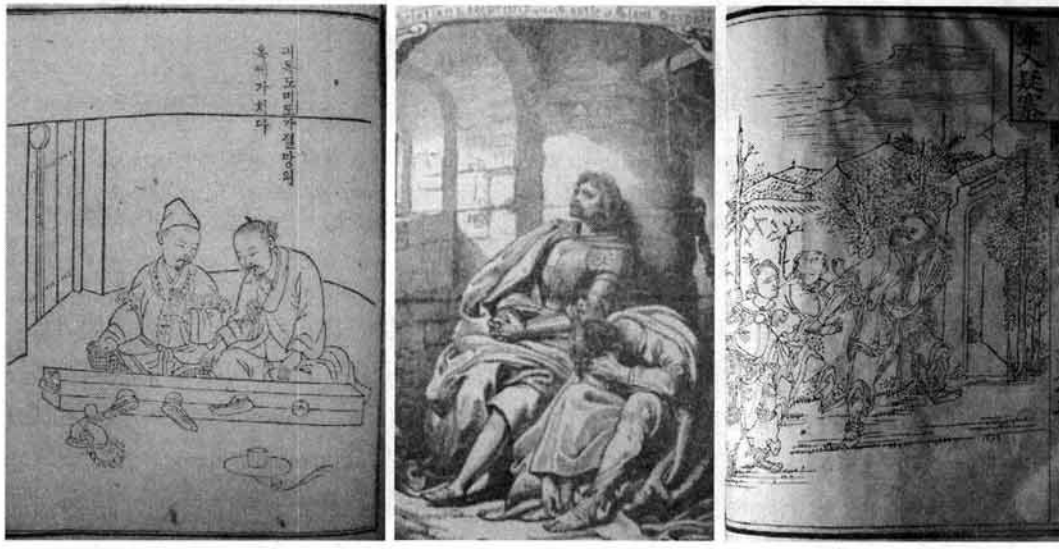
두 번째는 『텬로력뎡』 삽화 구성이 『天路歷程土話』보다 맥과이어 주석본에 더 근접한 경우이다. 이것은 총 9점이 있다(〈표 2〉). 그 중에 〈효시가방쓰는ᄃᆡ물뿌리는리치로긔독도롤ᄀᆞᄅᆞ치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도 5]). 이 장면은 '효시'가 방을 빗자루로 청소할 때 먼지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이치로 '긔독도'를 깨우친다는 내용이다. 『텬로력뎡』 삽화와 맥과이어 주석본은 공간감이 드러나는 정면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天路歷程土話』 삽화는 이 두 판본과 구성은 같으나 구도에서 서양의 선원근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평행사선식 구도에 인물들을 사선으로 배치했으며 주인공인 '긔독도'와 '효시'가 다른 인물들보다 크게 그려 고대 인물화 원리를 따르고 있음은 흥미롭다. 이는 김준근이 맥과이어 주석본에 近似하여 원근법 표현에 익숙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天路歷程土話』본은 전통적 회화 양식과 원리를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장면인 〈긔독도십ᄌᆞ가에다다ᄅᆞ죄짐을벗ᄉᆞ니텬ᄉᆞ가흰옷슬닙히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도'가 십자가에 이르러 짐을 벗고 천사가 나타나 '기독도'에게 흰옷을 입히는 장면인데, 맥과이어 주석본에서의 세 명의 천사들은 『텬로력뎡』에서 2명의 선녀로 번안되었지만 『天路歷程土話』에서는 아예 천사들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김준근이 내용에 있어서나 구성에 있어 『天路歷程土話』의 화가보다 이해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도 5] 좌) 김준근, 〈효시가방쓰ᄂᆞᆫᄃᆞ ㅣ물뿌리ᄂᆞᆫ리치로긔독도ᄅᆞᆯᄀᆞᄅᆞ치다〉, 『텬로력뎡』, 1895년, 목판본, 22.3×17.3㎝, 三文出版社(배재학당본), 화봉책박물관 중) H.C. Selous & M. Paolo Priolo, *The Interpreter shows Chri-stian the Room full of Dust* from *The Pilgrim's Progress*, 약 1880~90년, 우) 작자미상, 〈灑掃塵埃〉, 『天路歷程土話』, 1871년, 목판본, 洋城: 惠師禮堂

세 번째는 『텬로력뎡』 삽화 구성이 맥과이어 주석본이나 『天路歷程土話』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그려진 경우이다. 〈긔독도미도가졀망의옥에가치다〉와 〈텬국에들어가다〉 2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삽화들은 내용은 같으나 구성이나 표현 방식이 아주 다르다(〈표 3〉). 맥과이어 주석본에서 '크리스챤'(『텬로력뎡』의 긔독도)과 '호프풀(hopeful)'(『텬로력뎡』의 미도)은 절망이라는 거인의 성에 갇혀 있는 장면으로 의자에 앉아 고통에 신음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도 6]). 반면에 『텬로력뎡』 〈긔독도미도가졀망의옥에가치다〉에서는 '긔독도'와 '미도'가 우리나라 수형틀에 발이 묶인 채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장면으로 표현하였다. 더욱이 『天路歷程土話』에서는 감옥에 갇힌 장면이 아니라 괴물이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는 순간을 나타냈다. 형벌 주제의 풍속화를 많이 그려본 김준근은 이를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그렸지만 『天路歷程土話』의 삽화가는 감옥장면 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마지막 장면인 기독도와 미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텬국에들어가다〉에서는 날개달린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크리스챤의 모습을 보여준 맥과이어 주석본 삽화와 달리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 위에 떠있는 신선과 같은 '긔독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天路歷程土話』 역시 동자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낙원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의 천국에 해당하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각각 유사한 天上으로 해석되어 표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해 보면, 당시 조선인에게 생소한 서양의 천국이나 천사 같은 새로운 개념이 이에 상응하는 조선적 개념으로 번안되었음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구성에 있어 金俊根筆 『텬로력뎡』 삽화는 중국본인 『天路歷程土話』보다 영문본인 맥과이어 주석본의 삽화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준근은 맥과이어 주석본의 셀루스와 프리올로 삽화를 저본으로 삽화를 제작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漢譯本인 『天路歷程土話』의 영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김준근이 한국인 인물

표현에 대한 영감을 중국인물로 변용한 『天路歷程土話』 삽화로부터 얻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도', '진충', '미도' 등 등장인물들의 이름이나 '텬로력뎡'이라는 제목 등 텍스트의 번역에서 중국의 『天路歷程』을 참고했을 것이므로 삽화에 있어서도 중국본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25] 어쨌든 『텬로력뎡』 삽화는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양 문화예술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김준근이 서양 미술을 직접 접하고 자신의 그림에 수용했다는 점에서 개화기 미술의 특징을 보여준다 하겠다.



[도 6] 좌) 김준근, 〈긔독도미도가졀망의옥에가치다〉, 『텬로력뎡』, 1895년, 목판본, 22.3×17.3㎝, 三文出版社(배재학당본), 화봉책박물관 중) H.C. Selous & M.. Paolo Priolo, *Christian and Hopeful in the Castle of Giant Despair* from *The Pilgrim's Progress*, 약 1880~90년, 우) 작자미상, 〈牽入疑塞〉, 『天路歷程土話』, 1871년, 목판본, 洋城: 惠師禮堂

Ⅲ. 金俊根筆 『텬로력뎡』 삽화와 풍속화 양식의 영향관계

김준근이 『텬로력뎡』의 삽화 구성에 있어 맥과이어 주석본 삽화를 저본으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김준근의 제작 능력을 폄하 할 수 없다. 번역이 또 하나의 창작이듯 삽화의 번안 내지 변용 역시 일정 정도의 이해력과 창작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김준근의 창작력과 관련하여 『텬로력

25) 『텬로력뎡』 번역에 있어서 土話本보다는 文言本이나 官話本을 대상본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국의 官話本에 대한 전체적 파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삽화에 있어서는 土話本 참고의 가능성이 있어 본고에서는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廣州는 중국 개항지의 하나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왕래가 용이하여 이 토화본 역시 조선으로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뎡』에서 김준근이 왜 등장인물을 조선인으로 변용시켰는지, 그리고 서양화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텬로력뎡』 삽화의 한국적 변용

김준근이 맥과이어 주석본의 삽화를 조선식 인물과 배경으로 번안하여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신만의 그림 양식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김준근의 독특한 회화양식은 『텬로력뎡』 어디에도 김준근이 제작하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삽화 제작자로 김준근을 지목하는 데에 이견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26] 즉 『텬로력뎡』 삽화 인물들의 넓은 이마 · 길고 가느다란 눈 · 갈고리형의 코 · 여인들의 올림머리 묘법 · 상투를 올리고 밑에 남은 머리카락이 위로 치솟은 남성들의 머리 표현법, 표정 없는 얼굴 등은 김준근의 풍속화 속에 나타나는 인물 묘법의 특징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도 7]).

[도 7] 좌) 김준근, 〈평론촌〉부분, 『텬로력뎡』, 1895년, 목판본, 22.3×17.3㎝, 三文出版社(배재학당본), 화봉책박물관 우) 김준근, 〈탕근장이〉부분, 1888~1889년, 지본채색,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김준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 캐나다 · 프랑스 · 영국 · 러시아 · 덴마크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독일 · 일본 등 십 여 개국 박물관에 천여 점이 넘는 풍속화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많은 풍속화들이 해외 박물관에 소장된 이유는 김준근이 2인 이상 협업의 공동제작 방식을 통해 반복적인 주제의 풍속화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개항 이후 들어온 많은 외국인들에게 원산, 초량(부산), 인천 등지에서 판매했기 때문이다.[27] 『텬로력뎡』 서문 끝에 쓰인 '구세쥬강(ᄉᆞᄋᆞ)일쳔팔(ᄇᆞᆨ)구십ᄉᆞ년원산셩회긔일셔'의 원산이라는 지명은 원산에서 주로 활동했던 김준근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28]

이처럼 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대량의 풍속화 제작을 통해 김준근은 자신의 풍속화 양식을 확립하였으며 그 특징은 삽화 제작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텬로력뎡』 〈긔독도미도가졀망의옥에가치다〉는 김준근 풍속화의 가장 특징적 주제를 삽화에 재현한 대표적 예이다. 이 장면에 나타난 형벌장면은 당시 풍속화 주제로도 이례적인 것이었다.[29] 김준근은 개항 이후 민족학이나 민

26) Richard Rutt, *ibid*, p.27; 金珠英, *ibid*, p.104에서 『텬로력뎡』의 삽화를 김준근이 제작하였음을 언급하였다.
27) 신선영, *ibid*, pp.115~120.
28) 신선영, *ibid*, p.111.
29) 형벌장면은 19세기 말 이전의 일반 회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불교회화인 감로탱 하단부분에 등장하고 있어 김준근 풍속화와의 관련성에 있어 주목된다.

속학에 흥미를 가진, 적어도 조선을 알고자 하는 서양인의 수요에 의해 형벌장면을 수없이 반복하여 그렸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골량ᄎᆞ ㅣ 운죠인〉 (약 1888~1889)을 비롯한 여러 형벌장면이 그것이다([도 8]). 이러한 형벌 장면들이 『텬로력뎡』 삽화에서 자연스럽게 재현되었던 것이다. 또한 『텬로력뎡』 〈텬ᄉᆞ를맛나다〉에서 표현된 천사의 복장은 역시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소장의 〈님군뇽샹에안즈신모양〉(1886)의 왕의 모습과 닮아 있다([도 9]). 이제까지 왕의 초상을 市井에서 私的으로 그린다는 것을 불경스러운 일이었으나 시대의 변화를 나타내듯이 1886년 조선을 방문한 미 해군 제독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21~1895)의 딸인 메리 슈펠트(Mary Acromfie Shufeldt)의 주문으로 〈님군뇽샹에안즈신모양〉이 그려졌다.[30] 이 그림은 실제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속화에 보이는 옥황상제 같은 모습이지만 김준근은 풍속화에서는 왕의 모습으로 치환시켰고 『텬로력뎡』 삽화에서는 천국의 왕(하나님)으로 번안하여 나타냈던 것이다.

[도 8] 좌) 김준근, 〈긔독도미도가절망의옥에가치다〉부분, 『텬로력뎡』, 1895년, 목판본, 22.3×17.3㎝, 三文出版社(배재학당본), 화봉책박물관 우) 김준근, 〈골량ᄎᆞ ㅣ 운죠인〉, 1888~1889년, 지본채색,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도 9] 좌) 김준근, 〈텬ᄉᆞ를맛나다〉부분, 『텬로력뎡』, 1895년, 목판본, 22.3×17.3㎝, 三文出版社(배재학당본), 화봉책박물관; 우) 김준근, 〈님군뇽샹에안즈신모양〉, 1886년, 지본채색, 17.5×14.0㎝,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이렇게 번안된 조선인의 모습은 당시에도 큰 주목을 받았다. 삼문출판사에서 간행한 선교사들의 잡지인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1월호 Literary Department란에 선교사 빈튼(C.C. Vinton, 1856~1936)의 『텬로력뎡』에 관한 서평이 게재되어 있다. 이 서평에서 빈튼은 삽화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삽화에 대해서 "해부학상 인물 묘사가 훌륭하여 조선 최고의 선묘화를 능가할 정도"이고

30) 김준근 풍속화에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신선영, *ibid*, 『미술사학』 20, 2006, pp.120~128; *ibid*, 『기산풍속도 - 그림으로 남은 100년 전의 기억』, 청계천문화관, 2008, pp.142~145.

"외국인이 아닌 조선인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31] 이러한 빈튼의 예견은 적중해서 게일의 『텬로력뎡』은 1926년까지 4판을 찍을 정도로 당시 최대의 판매부수를 올렸다.[32] 천주교나 기독교 서적들은 대중 전파용이었던 만큼 한 번에 많은 부수를 찍었는데, 예를 들면 『셩교일과』(1862~64, 4권 4책, 목판본)는 3천여 질을 간행했고 『셩찰긔략』(1864년, 목판본)은 천여 권을 간행하였다.[33] 『텬로력뎡』 역시 호화판 장정으로 500부, 보통 장정으로 2000부로 총 2500부가 인쇄되었음을 선교사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가 부모님께 보내는 1895년 6월 16일자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다.[34] 그리고 *The Korean Repository*에 1896년 1월호부터 8월호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광고를 내보냄으로써 보급을 위한 판매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가격은 조선종이에 인쇄한 것은 상하 2권 한 질에 5냥($1, 도매가 90cent), 100질을 살 경우는 450냥에 할인 판매하였다. 또 중국 종이에 인쇄한 것은 한 권에 1냥 40푼(700cash, 도매가 600cash), 100권을 살 경우는 각 1냥 20푼으로 조선종이에 인쇄한 것보다 싸다. 대한제국기 출판물 165종의 가격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서적가는 58전(즉 5.8냥)으로, 『텬로력뎡』의 가격은 평균 서적가 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35] 이렇게 대량으로 인쇄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텬로력뎡』은 윤치호 같은 엘리트 계층 뿐 아니라 경신학교의 전신인 원두우(H.G. Underwood, 元杜尤)학당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로 사용되었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전계층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보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36]

그렇다면 김준근의 『텬로력뎡』의 삽화 속 인물들은 왜 조선인으로 변용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물론 게일 부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지만 근저에는 당시 기독교 토착화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선교정책과 연관되어 있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선교사들은 선교 방법의 하나로 토착민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독교 토착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이러한 선교방법이 명문화되어 드러난 것이 게일이 속해 있는 북장로교의 선교정책 중 하나인 네비우스 선교정책이었다. 북장로교에서는 1890년 6월 중국에서 선교에 종사하고 있던 네비우스(John. L. Nevius, 1829~1893) 목사를 초청하여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그의 선교에 대한 생각과 방법은 조선 내 선교사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893년 조선의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에서 네비우스의 선교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기 이르렀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적이고 진취적인 토착교회 형성'이었는데, 그 실천 방안 중에는 '상류계층보다 서민층 전도를 우선'으로

31) C.C. Vinton, 「텬로력뎡」, *Korean Repository* vol. Ⅲ, No.1, Seoul: the Trilingual Press, 1896, p.39.
32) 김동언, *ibid*, pp.28~34.
33) 이중연, 『'책'의 운명 - 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 · 사상사 -』, 혜안, 2001, p.347.; 金良善, 『韓國基督教史研究』, 基督教文社, 1980, p.75.
34) 「헐버트가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http://search.i815.or.kr) 참조.
35)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1월호 서평에서는 조선의 화폐단위인 '냥(nyang)'과 '푼(poun)'으로, 광고에서는 미국 화폐단위인 달러($)와 중국 화폐단위로 여겨지는 cash로 책정하였다. C.C. Vinton, *ibid*, p.38; 이중연, *ibid*, pp.380~381.
36) 밀러(F. S. Miler)의 1896년 10월 16일 선교보고서(Report of Boys School of Mission, https://search.i815.or.kr) 참조.

하며 '모든 기독교 문서는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37] 따라서 이 시기에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서민층의 선교를 위해 기독교 서적은 배우기 쉬운 한글로 번역되었고 그 일환의 하나로 『텬로력명』이 한글 번역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을 쓴 이광수(李光洙, 1892~1950)조차도 "諺文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심어 준 것은 예수교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글과 그 중요성을 알리는데 있어 선교사들의 역할은 두드러졌다.[38] 특히 게일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Simple) 언어"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조선에 전파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한글 번역서들을 출간하였던 인물이었다.[39]

선교사들이 토착민의 정서를 파악하고자 했음은 역시 *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1월호에 게재된 『텬로력명』 서평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선교를 위해 韓民族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딱딱한 교리문답류보다는 이야기체의 성경이야기나 우화로 접근하려는 변화가 있었는데, 『텬로력명』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쓰고 있다. 게일은 조선 문학의 특성상 조선인들이 상징과 암시로 이루어진 소설을 쉽게 이해한다는 것을 간파했고 많은 기독교 소설 중에 '조선인들이 즐겨 찾았던' *The Pilgrim's Progress*를 번역·간행했다는 것이다.[4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삽화 인물에서도 서양인 '크리스챤' 보다는 조선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조선인 '긔독도'로 변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량의 조선의 풍속화를 제작하고 외국인들과 잦은 교류가 있었던 김준근은 이를 수용하는데 적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준근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그림을 제작하였던 상업 화가였기 때문에 주문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네비우스 선교방침을 실천했던 북장로회 소속 게일은 '크리스챤'을 '긔독도'로 변환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41]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판본의 『天路歷程官話』나 『天路歷程土話』 등은 우리나라 『텬로력명』과 마찬가지로 토착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어체로 의역하여 이야기를 전개시켰다. 더욱이 『天路歷程土話』나 『喩道要旨』 등의 삽화 인물들은 전형적인 중국인으로 묘사되었는데 이 역시 기독교 토착화를 위한 선교 방침이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여겨진다. 네비우스와 같은 선교 방법은 19세기 중국의 선교사들이 공감하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존 번연이 천로역정을

37) 네비우스는 선교사로 1854년 중국에 입국한 이래 浙江省 寧波와 山東省 등지에서 얻은 선교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선교방법을 1885년부터 *Chinese Recorder*에 연재하면서 알려졌다. 이것은 1899년 *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김남식, 「네비우스 宣教方法 硏究」, 『신학지남』 제52권 32집, 신학지남사, 1985, pp.146~170.

38) 이광수는 예수교가 조선에 준 은혜 7가지 중 하나로 '諺文의 普及'을 들었다. 孤舟(이광수), 「耶蘇教의 朝鮮에 준 恩惠」, 『青春』 第9號, 京城: 新文館, 1917, p.17.

39) James S. 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09), pp.137~139. 본고에서는 趙庭京, *ibid* (pp.80~83)에서 재인용.

40) C.C. Vinton, 「텬로력명」, *Korean Repository* vol. Ⅲ. No.1, Seoul: the Trilingual Press, 1896, p.38.

41) 이정숙, 「한국 기독교 미술의 역사적 변천과 토착화 노력」, 『한국기독교연구논총』 21,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1, pp.395~428; 최효준, 「기독교 토착화 관련 聖畫 도상 구현의 의의 - 20세기 전반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 『미술사학보』 18, 미술사학연구회, 2002, pp.127~146.

저술할 당시인 17세기 영국의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기독교 문화에 대한 파악보다는 이질적인 문화 풍토 속에서 오로지 기독교 전파라는 목적을 위해 중국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구어체 중국어로 중국인이 등장하는 삽화를 삽입하여 제작하였던 것이다.[42]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중국의 번역자들은 종교 전파의 목적을 떠나 중국과 영국의 문화가 다름을 인식하고 문학서로서 천로역정 원문을 충실히 직역하여 새로이 번역 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삽화의 양상 역시 달라졌는데, 즉 등장인물들이 중국인이 아닌 서양인의 모습 그대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37년에 謝頌羔가 번역하고 上海廣學會에서 출판한 『聖遊記』는 『天路歷程』을 새롭게 펴낸 것이었다. 그 서문에서 인명이나 지명은 舊本에 의거했지만 이전의 번역들이 현대 독자들에게 맞지 않으므로 새로이 번역했다고 언급하고 있다.[43] 이는 의역이 아닌 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 책의 삽화에서는 이전의 토속화된 중국인이 등장하지 않고 맥과이어 주석본의 셀루스와 프리올로 삽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간행 의도에 따라 번역과 삽화의 접근방식이 크게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텬로력뎡』 삽화에 나타난 서양화법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준근 풍속화 인물 양식이 삽화에 그대로 재현되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김준근의 『텬로력뎡』 삽화 제작을 정점으로 이후 그의 풍속화 양식에도 일정 정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양화법의 구사를 통해서였다. 즉 김준근은 선원근법을 『텬로력뎡』 삽화 제작 이전에도 인지하고 있어 『텬로력뎡』 삽화에 분명하게 묘사하였던 반면에 명암법은 『텬로력뎡』 삽화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삽화 제작 이후 자신의 풍속화에 뚜렷이 표현되었다.

[도 10] 좌) 김준근, 〈괴독도가담넘어논사람을유하다〉, 『텬로력뎡』, 1895년, 목판본, 22.3×17.3㎝, 三文出版社(배재학당본), 화봉책박물관. 우) H.C. Selous, Esq. and M. Paolo Priolo, *Formalist and Hypocrisy coming into the Way over the Wall* from *The Pilgrim:s Progress*, 약.1880~90.

『텬로력뎡』 삽화에서 선원근법이 뚜렷하게 사용된 장면은 기독도가 담 넘어 온

42) 吳文南, 「從歸化到異化」, 『甘肅聯合大學學報』 第22卷 第5期, 2006. 11, pp.69~71.
43) 本人約翰 著, 謝頌羔 譯, 「序文」, 『聖遊記』, 上海廣學會, 1937.

사람을 깨우치는 「긔독도가담넘어논사람을ᄀᆞ ᄅᆡ유하다」와 기독도가 진충에게 남의 비방을 잘하는 순도를 경계하라는 충고의 내용을 담은 「평론촌」 등이 있다. 김준근은 주인공 '긔독도'를 비롯한 담을 넘는 '시의(허례)'와 '위션(위선)', 그리고 '진츙(신의)'이라는 인물, 단순히 선과 태점으로 이루어진 산수, 초가집처럼 보이는 건축물 등을 모두 조선식으로 그렸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원근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긔독도가담넘어논사람을ᄀᆞ ᄅᆡ유하다」 삽화의 저본인 맥과이어 주석본의 셀루스와 프리올로 삽화 「담을 넘는 포멀리스트와 히포크러시(*Formalist and Hypocrisy coming into the way over the wall*)」를 보면 서양화법의 훈련을 잘 받은 화가들의 작품답게 선원근법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잘 나타나 있다([도 10]). 이에 비하면 김준근의 선원근법은 벽돌담이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어색하지만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평론촌」에서 김준근은 맥과이어 주석본의 삽화와는 다른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도 11]). 맥과이어 주석본 셀루스와 프리올로의 삽화 「수다떠는 거리(*Prating Row*)」는 셀루스의 특기인 많은 군중들이 앞부분에 운집해 있어 뒷배경 건물의 원근법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김준근의 삽화 「평론촌」에서는 선원근법에 맞추어 조선식의 초가집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김준근의 풍속화 중 「평론촌」의 선원근법 표현과 유사한 장면이 오스트리아 빈의 오스트리아민속박물관 소장 「사당거사판노름하는모양」에서도 나타나 눈길을 끈다([도 12]). 수묵의 선묘로 그려진 이 그림은 사당과 거사들이 선비들을 상대로 판을 벌려 놀이하는 장면 뒤로 초가집이 쭉 나열되어 있다. 이 초가집의 표현에서 「평론촌」과 같은 선원근법이 적용되어 있어 흥미롭다. 이 그림 뒷면에는 도장 하나가 찍혀 있는데 이것은 K.K(Kaiser King) Collection, 즉 오스트리아 왕실 콜렉션이 1887년 여러 개의 박물관으로 분산되면서 김준근의 그림들이 민속박물관으로 이관될 때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찍은

[도 11] 좌) 김준근, 〈평론촌〉, 『텬로력뎡』, 1895년, 목판본, 22.3×17.3㎝, 삼문출판사(배재학당본), 화봉책박물관; 우) H.C. Selous, Esq. and M.Paolo Priolo, *Christian and Faithful enter the Town of Vanity* from *The Pilgrim:s Progress*, ca.1880~90, 목판본, 24.5×17㎝, New York, London, Paris, Melbourne: Casell&Company, Limited.

것이라고 한다([도 12])[44]. 그러므로 김준근의 이 풍속도는 적어도 1887년 이전에 그려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대상 이 풍속화가 『텬로력뎡』 삽화(1895)보다 앞서게 되므로 김준근은 이 삽화를 그리기 이전부터 선원근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원근법이 『텬로력뎡』 삽화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도 12] 좌) 김준근, 〈사당거사판노름하는모양〉, 28.5×42.0㎝, 지본수묵, 1887년, 오스트리아민속박물관.
우) 〈사당거사판노름하는모양〉 뒷면 도장

반면에 『텬로력뎡』 삽화에 명암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김준근이 명암법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조선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명암 표현방식을 배제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었다.[45] 그러나 김준근이 초보적이나마 『텬로력뎡』 삽화 제작 이전에 선원근법을 구사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명암법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텬로력뎡』 삽화에서 명암법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김준근의 명암법 구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판 각수의 기술상의 미흡이나 판각 비용상의 문제 등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삽화제작 이전에 제작된 미국의 스미소니언박물관본(1886),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본(1888~1889),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마이어본(1894년이전), 덴마크국립박물관본(1889~1900) 풍속화 등에는 명암법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18세기 후반 이래 사용된 특징적 채색법이 사용되었다. 즉 인물 복식의 윤곽선을 수묵선묘로 그리고 그 윤곽선을 따라 짙은 채색을 한 번 더 가한 다음 윤곽선 내부를 담채하는 이중윤곽묘법이다.[46] 이 이중윤곽묘법은 양감을 표현하는 일종의 명암법으로 주로 19세기 인물화에 도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텬로력뎡』 삽화 제작 이후, 즉 1895년 이후에 제작된 김준근 풍속화에서는 이전에 비해 명암법 구사에서 훨씬 진전된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소극적인 명암법 사용에서 벗어나 얼굴에

44) 이 사실은 오스트리아의 빈의 오스트리아민속박물관(Austrian Museum of Folk Life and Folk Art)의 큐레이터인 Bettina Zorn 선생님이 확인해 주었다.
45) 신선영, *ibid*, pp.151~152.
46) 인물화의 이중윤곽묘법에 대해서는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395.

갈색으로 짙은 농담을 주면서 본격적인 양감표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숭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스왈른본(1896~99년 추정)이다.[47] 이 풍속화 속의 인물은 이마·코·턱 부분은 밝게 칠하고, 눈밑이나 턱선·코 주변 등에는 갈색의 짙은 음영을 가해 얼굴의 양감을 나타냈다([도 13]). 이렇게 짙은 명암법을 사용한 것은 1895년 이전의 김준근 풍속화들과는 차이가 있다. 또 한 예로 1897년 이후의 그려진 일본 幽玄齋 소장의 「三酸圖」의 항아리의 표현에는 일정한 방향에서 들어오는 빛을 정확히 인식하여 명암처리하였음을 볼 수 있다.[48] 이는 김준근이 삽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맥과이어 주석본의 셀루스와 프리올로의 삽화에 경도되어 이후 자신의 풍속화에 명암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셀루스와 프리올로의 삽화들은 마치 연극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과장된 몸짓과 얼굴 표정을 통해 소설의 극적 긴장감을 더해 준다. 이는 명암법을 사용하여 역동성있는 인물 근육을 표현함으로써 극적 몸짓과 동작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근은 이러한 명암법을 기초 교육없이 쉽게 습득할 수 없었겠지만 자신이 인식한 한도 내에서 한층 더 강하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도 13] 김준근, 〈부좋허고〉 부분, 1896~1899년, 지본(洋紙)채색, 23.2×16.0㎝,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이와 같이 김준근은 자신의 풍속화에 이미 사용하던 원근법을 차용하여 삽화를 제작하였고 또 삽화를 제작하면서 더욱 강하게 인지하게 된 명암법은 이후 풍속화에 구사하였다. 김준근의 그림에 서양화법이 사용된 것은 김준근이 외국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고 특히 『텬로력뎡』 삽화를 제작하면서 비록 삽화지만 서양화를 실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Ⅳ. 결론 : 金俊根筆 『텬로력뎡』 삽화의 의의

이상에서 金俊根筆 『텬로력뎡』 삽화는 漢譯本인 『天路歷程土話』보다는 영문본인 맥과이어 주석본 *The Pilgrim's Progress*의 셀루스와 프리올로 삽화의 영향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개항 이전까지는 서양 미술과 이론이 중국을 통해 수용되다가 개항이후 비록 인쇄물이긴 하지만 서양 미술과 직

47) 박효은은 스왈른본 기산 풍속화 중의 「단발한 모양」, 「샹투밋치고」 같은 장면(1896년 단발령 시행)과 스왈른의 1899년 집필 원고에 기산풍속화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스왈른본 기산 풍속화의 제작년도를 1896~99년으로 보았다. 박효은, 「신수품 소개」, 『韓國基督教博物館誌』 제3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8, p.165.

48) 신선영, *ibid*, p.153.

접 접촉하고 그림에 반영한 최초의 예로서 미술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서양화의 직접적 영향이 김준근의『텬로력뎡』삽화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나타났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번역은 단지 언어에서 언어로의 옮김이 아니라 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전달하는 작업이다. 19세기말 서양과 접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西洋書의 번역은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조선사회에 유포시키면서 조선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漢譯된 기독교서가 17세기중엽 淸에서 소현세자에 의해 유입된 이래 西學이라는 학문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기독교 사상이 급진적으로 조선의 유교적 가치체계를 부정하자 박해를 겪기도 하였다. 이에 1886년 朝佛수호통상조약으로 공식적 선교의 자유를 얻은 선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네비우스 선교사상 등과 같이 토착민들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방안의 하나로『텬로력뎡』과 같은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를 택하여 이국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조선의 환경에 맞게 번역함으로써 새로운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삽화에도 적용되어『텬로력뎡』에서 등장인물들이 조선인으로 번안되었던 것이다. 삽화는 풍속화가인 김준근이 담당하였는데, 김준근은 개항장에서 외국인과 교류하며 수많은 조선의 풍속화를 제작·판매하였던 상업화가였기 때문에 이 삽화에서 조선인의 모습을 능숙하게 번안할 수 있었다.

『텬로력뎡』삽화를 제작한 김준근은 삽화 도상을 自國化·土俗化하였지만, 이미지의 표현방식에서는 서양의 시각문화를 적극 반영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양화법인 원근법과 명암법이다. 서양화법은 조선후기에 이미 중국을 통해 들어와서 초상화나 산수화 등에 표현되고 있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도식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는데, 김준근은 삽화제작 이전에 이러한 원근법과 명암법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텬로력뎡』삽화의 저본으로 삼았던 맥과이어 주석본의 셀루스와 프리올로의 삽화를 실견하면서 서양화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비록 삽화에는 선원근법만을 적용하고 명암법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후 자신의 풍속화에서 서양화법을 더욱 발전적으로 적용시켰던 것이다.

『텬로력뎡』은 개항이후 막 생성된 서양의 근대적 제도와 시설 속에서 탄생된 번역서라고 할 수 있다. 즉『텬로력뎡』은 서양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의 근대적 인쇄시설을 갖춘 삼문출판사에서 간행된 최초의 서양문학 번역서로서, 기계식 인쇄시설을 이용한 대량 복사가 가능한 만큼 보급 기간·보급 대상 등이 훨씬 넓어졌다.『텬로력뎡』초판 인쇄부수만 2500부였고 당시 서적의 평균 가격보다 2배 정도 낮았음을 볼 때『텬로력뎡』의 간행은 일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계층을 대상으로 기독교 전파의 목적으로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텬로력뎡』의 삽화는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삽화는 교육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그 내용이나 사상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효용성을 가진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화의 단면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또 직관적이어서 개념을 전달하는 언어보다 더 직접적으로 觀者에게 인지될 수 있다"는 선교미술학자 틸리히의 주장처럼 김준근의 삽화는 일반 독자들에게 기독교 사상을 쉽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졌음에 틀림없다.[49] 김준근은 서양의 산업혁명의 利器인 인쇄 매체를 이용하여

삽화라는 미술 언어로 대중화된 서적물을 대량으로 출판·보급함으로써 지적 교양의 일반화를 실현시키는데 일조하였는데, 이는 곧 근대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개항장에서 풍속화를 대량으로 제작 판매했던 상업화가 김준근이 『텬로력뎡』을 통해 근대에 새롭게 유입된 '삽화'라는 장르를 접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양의 새로운 시각문화를 체험하고 대중적으로 유포되었다는 점에서 『텬로력뎡』은 개항기 조선사회의 문화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표 1〉 세 판본의 장면이 유사한 예

장면번호	텬로력뎡		맥과이어 주석본 *The Pilgrim's Progress*		天路歷程土話	
1	긔독도가텬도의게도를 밧다 기독도(Christian)가 전도사(Evangelist)의 啓導를 받다		Evangelist directs Christian to the Wicket Gate		指示窄門	
4	긔독도가우울니에쌔ㅏ졋ᄂᆞᆫᄃᆞㅣ은조가 구원ᄒᆞ다 기독도(Christian)가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은조(help)가 구원하다		Help Draws Christian out of the Slough of Despond		救出泥中	
7	긔독도가좁은문에다다ᄅᆞ나인ᄌᆞ가열어주다 기독도(Christian)가 좁은 문에 도착하니 인자가 [문을] 열어주다.		Christian at the Wicket Gate		將入窄門	
23	긔독도가텬쥬교황을지나가다 기독도(Christian)가 천주교황을 지나가다		Giant Pope threatens Christian		覇伯老王	

49) 채수일, 앞의 논문, p.672에서 재인용.

장면 번호	텬로력뎡		맥과이어 주석본 *The Pilgrim's Progress*		天路歷程土話	
30	진츙이해를밧다 진충(Faithful)이 해를 입다.		Faithful suffers Death at Vanity Fair	(부분)	盡忠受死	
31	긔독도미도가라득의쳐소금기둥된거슬보다 기독도(Christian)와 미도(Hopeful)가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을 보다		The Pillar of Salt		同觀鹽柱	
34	긔독도미도옥에셔도망ᄒᆞ다 기독도(Christian)와 미도(Hopeful)가 옥에서 도망치다		Christian and Hopeful escape from Doubting Castle		脫出疑塞	
38	광명ᄒᆞᆫ사ᄅᆞᆷ이긔독도와미도ᄅᆞᆯ구믈에서구원ᄒᆞ다 광명한 사람이 기독도(Christian)와 미도(Hopeful)를 그물에서 구원하다		Christian and Hopeful delivered from the Net		裂網救出	
39	미도가미긔에셔조을다 미도(Hopeful)가 미지(迷地)에서 졸다		Beware of Sleeping on the Enchanted Ground		勿睡迷地	
41	ᄉᆞ하를건너다 강을 건너다		Christian and Hopeful cross the River		過無橋河	

〈표 2〉『텬로력뎡』이 맥과이어 주석본에 근접한 예

장면번호	텬로력뎡		맥과이어 주석본 *The Pilgrim's Progress*		天路歷程土話	
9	효시가방쓰ᄂᆞᆫ ᄃᆞ ㅣ 물(섀ㅜ)리ᄂᆞᆫ 리치로긔독도ᄅᆞᆯ ᄀᆞᄅᆞ치다 효시(Interpreter)가 방을 쓸 때 물 뿌리는 이치로 기독도(Christian)을 가르치다		The Interpreter shows Christian the Room full of Dust		灑掃塵埃	
12	긔독도십ᄌᆞ가에다다ᄅᆞ죄 짐을벗ᄉᆞ니텬ᄉᆞ가흰옷ᄉᆞᆯ닙히다 기독도(Christian)가 십자가에 도착하여 죄 짐을 벗으니 천사가 [기독도에게] 흰옷을 입히다.		Christian in view of the Cross		脫下罪任	
14	긔독도가회의와심경의말을듯지안타 기독도(Christian)가 회의(Timorous)와 심경(Mistrust)의 말을 듣지 않다		Christian meets Timorous and Mistrust		上艱難山	
19	긔독도가갑옷ᄉᆞᆯ닙다 기독도(Christian)가 갑옷을 입다		Christian is armed by Prudence, Discretion, Piety, and Charity		身披甲冑	
20	긔독도가아파륜과싸호다 기독도(Christian)가 아폴리언(Apollyon)과 싸우다		Christian's Combat with Apollyon		戰勝魔王	

장면 번호	텬로력뎡		맥과이어 주석본 *The Pilgrim's Progress*		天路歷程土話	
21	긔독도가악귀를만나긔도ᄒᆞ다 기독도(Christian)가 악귀를 만나기도 하다		Christian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陰翳祈禱	
25	로아당이진츙을(ㅅㅣ)이다 아담(Adam)이 '진충(Faithful)'을 괴다		Faithful's Struggle with Adam the First		摩西執法	
29	긔독도진츙이허화시에셔잡혀가다 기독도(Christian)와 진충(Faithful)이 허영의 시장에서 잡혀가다		Christian and Faithful put in Irons		市中受辱	
35	텬셩을ᄇᆞ라보다 천성을 바라보다		Christian and Hopeful with the Shepherds of the Delectable Mountains	 (부분)	同遊樂山	

〈표 3〉 세 판본의 장면이 각각 다른 예

장면 번호	텬로력뎡		맥과이어 주석본 *The Pilgrim's Progress*		天路歷程土話	
33	긔독도미도가졀망의옥에 가치다 기독도(Christian)와 미도(Hopeful)가 절망의 옥에 갇히다		Christian and Hopeful in the Castle of Giant Despair		牽入疑塞	
42	텬국에들어가다 천국에 들어가다		The Gates are Opened		將入天城	

〈참고문헌〉

김남식, 「네비우스 宣教方法 硏究」, 『신학지남』 제52권 32집, 신학지남사, 1985.

金秉喆,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硏究』, 乙酉文化社, 1980.

金鳳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의 韓國學 著述活動에 관한 硏究」, 『서지학연구』 3, 서직학회, 1988.

金珠英, 「그리스도교 전래에 따르는 西洋畫流入의 軌跡」, 『弘益美術』 1, 1972.

김동언, 『텬로력뎡과 개화기 국어』, 한국문화사, 1998.

김홍만, 『천로역정』, 생명의말씀사, 2005.

朴昭賢, 「권력, 이미지, 텍스트-明淸代 公案 삽화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6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박효은, 「『텬로력뎡』 插圖와 箕山風俗圖」, 『崇實史學』, 2008.

_____, 「신수품 소개」, 『韓國基督敎博物館誌』 제3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8.

신선영, 「19세기 말 시대의 반영, 箕山 金俊根의 風俗畫」, 『기산풍속도-그림으로 남은 100년 전의

기억』, 청계천문화관, 2008.
_____, 「箕山 金俊根 風俗畫에 관한 硏究」, 『美術史學』 20,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6.
안종묵, 「한국 근대신문 · 잡지의 발달 시기에 선교사들의 언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 한국언론학회 2004.
여승구, 『책 · 冊과 歷史』, 한국출판무역주식회사, 2003.
오순방, 「韓國基督敎博物館 所藏 韓國 최초의 기독교 번역소설 『인가귀도』 연구」, 『한국의 초기 기독교 문학』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3회 매산기념강좌, 2006.
尹春炳, 『韓國基督敎新聞 · 雜誌百年史 1885~1945』,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이광수,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靑春』 第9號, 京城: 新文館, 1917.
이성미, 『조선시대 그림 속의 서양화법』, 대원사, 2000.
이정숙, 「한국 기독교 미술의 역사적 변천과 토착화 노력」, 『한국기독교연구논총』 21,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1.
이중연, 『'책'의 운명 - 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 · 사상사』, 혜안, 2001.
정병모, 「箕山 金俊根 風俗畫의 國際性과 傳統性」, 『강좌미술사』 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趙庭京, 「J.S. Gale의 韓國認識과 在韓活動에 關한 一硏究」, 『한성사학』 3, 한성사학회, 1985.
존 번연, 朱耀燮 譯, 『天路歷程』 上 · 下, 乙酉文化社, 1975.
채수일, 「선교와 미술 : 테오 순더마이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연구논총』 31,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4.
최효준, 「기독교 토착화 관련 聖畫 도상 구현의 의의 - 20세기 전반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18, 美術史學硏究, 2002.
吳文南, 「從歸化到異化」, 『甘肅聯合大學學報』 第22卷 第5期, 2006.
Cooke, Simon. "A 'Considerable Power': the Illustrations of Henry Courtney Selous," *The Private Library* 6th Series, 1:3, 2008.
Rutt, Richard.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Seoul: Royal Asicatic Society, Korean Branch, 1972.
Vinton, C.C. 「텬로력뎡」, *Korean Repository* vol. Ⅲ. No.1, Seoul: the Trilingual Press, 1896.

* 이 논문은 2009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12월 2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0년 1월 1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1월 15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f the first Korean version of *The Pilgrim's Progress*'s Illustration by Kim Jun-geun

Shin, Sun-young*

The Korean version of *The Pilgrim's Progress* published in 1895 was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Western and Christian literature. The original work *The Pilgrim's Progress* was written by the Englishman John Bunyan(1628~1688) in 1678. The translators of the first Korean version of *The Pilgrim's Progress* were Harriet Elizabeth Gibson(1860~1908) and James Scarth Gale(1863~1937), Christian missionaries who came to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A Korean genre painter of the late 19th century, Kim, Jun-geun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as *The Pilgrim's Progress*'s illustrator. These illustrations are considered to be the beginning of Christian art in Korea.

The important fact is that Kim's illustration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English version and not to the Chinese version of *The Pilgrim's Progress.* The illustrations of the English version of *The Pilgrim's Progress*, published in England by Cassell & Company, were done by H. C. Selous and M. Paolo Priolo. The illustrations of Chinese version are anonymous ones of the *Tian lu li cheng tu hua* (天路歷程土話) published by Hui shi li tang (惠師禮堂), Guangzhou, 1870~71. There's no doubt that Kim's illustrations were influenced by those of H. C. Selous and M. Paolo Priolo rather than those of *Tian lu li cheng tu hua* (天路歷程土話). The composition of illustrations and contents of story in Kim's drawings were identical to those of H. C. Selous and M. Paolo Priolo. This showed that Western art entered directly into Korea and not through China.

Also, Kim had some knowledge of perspective and shading, techniques of Western painting, prior to the making of *The Pilgrim's Process.* Kim further established the style and techniques of Western paintings through the production of *The Pilgrim's Progress* based on the illustrations of Selous and Priolo.

Another characteristic of Kim's illustrations is that he replaced Western people to represent Koreans. Because of the Christian missionary policy, Kim's illustrations followed Nevius's method that propagated Christianity based on the culture of indigenous people and atmosphere. These

* a part-time lectur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llustrations were able to communicate the idea of the book to others easily. Moreover, the Korean version *The Pilgrim's Progress* was available to all classes and generations. Kim made possible the generalization of educational reading by distributing his illustrations as popularized modern art. So to speak, the Korean genre painter, Kim, Jun-geun voluntarily or not opened new field of illustration.

[Key Words] Kim, Jun-geun, The Pilgrim's progress, Robert Maguire, H. C. Selous, M. Paolo Priolo, Tian lu li cheng tu hua, illustration, Nevius, genre painting